

\* 2012년 시립극단 공연현황 총괄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8건 / 83회			22,514명
2012. 2. 3 ~ 19 소공연장 (30회)	제61회 정기공연 “바람의 비밀”	<p>작 : 실비 보르텐 / 비올레타 보브자크 연출 : 이재상 작곡 : 최경숙</p> <p><b>* 출연진 *</b></p> <p>조옥선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문정 김태범 최지연 김태훈 송주희 서창희 김희원 황혜원 (객원) 이경은</p> <p><b>* 스텝 *</b></p> <p>안무 : 이지영 노래지도 : 한설희 무대미술 : 이상수 조명디자인 : 강대근 음향디자인 : 김호택 의상디자인 : 손진숙 분장 : 이지연 조연출 : 용선중 조연출보 : 노유연 기획 : 김화산 이옥희 유은미 이돈형</p>	<p><b>엄마를 구하기 위한 네 가지 비밀을 찾아라!!</b> <b>사라진 엄마를 구하기 위한 알리오샤의 좌충우돌 모험!</b></p> <p>요즘의 세상은 온통 선과 악 둘 만이 존재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러 얼굴을 하고 있지요. 아이들은 어른이 못 보는 것과 어른에게는 안 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 중의 하나인 알리오샤는 엄마를 구하기 위해 자연의 소리를 듣고, 요정과 정령들의 도움을 받으며 구름나라로 씩씩하게 나아갑니다. 그 와중에 용기와 지혜, 믿음과 사랑의 힘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 엄마를 구해냅니다. 모험을 통해 성장하는 알리오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아이의 이야기입니다.</p> <p><b>[즐거리]</b></p> <p>몇 달째 우울증에 시달리는 구름 왕은 알리오샤의 엄마가 부르는 노랫소리에 맘이 편해짐을 느껴 납치하지만, 그녀가 슬퍼하며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자 태풍의 눈에 가두어 버린다. 한편 엄마에게 달과 푸른 용의 전설을 듣고 숲에 다녀 온 알리오샤는 엄마가 없어진 것을 알고 찾아 나선다. 숲과 땅속 세계, 동굴에서 위기를 거치며 용기, 지혜, 사랑, 믿음이라는 네 가지 시험을 통과한 알리오샤는 요정과 정령들의 도움을 받으며 도착한 구름나라에서 마침내 엄마를 만난다. 아이를 만나 기쁜 엄마가 다시 노래를 부르자 구름왕은 사과를 하고, 알리오샤와 엄마는 바람이 불 때마다 노래를 바람에 실어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다.</p>	6,333명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12. 3. 30 ~ 31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2회)</p>	<p>초청공연 “햄릿”</p>	<p>원작 : 윌리엄 셰익스피어 번역 : 신장옥 연출 : 이중훈</p> <p><b>* 출연진 *</b></p> <p>김용란 정남철 조옥선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문정 김태범 최지연 김태훈 송주희 서창희 김희원 황혜원 (객원)</p> <p>고인배 이강덕 이정훈 김한식</p> <p><b>* 스텝 *</b></p> <p>작편곡 : 미하엘 슈타우다허 무대디자인 : 이태섭 조명디자인 : 니한수 의상디자인 : 정경희, 정혜영, 오세웅 분장디자인 : 손진수 소품 : 정윤정 사진 : 유재형 팬싱지도 : 장기철, 두화정 조연출 : 손경희 기획 : 김화산 이옥희 유은미 이돈형</p>	<p><b>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b></p> <p>특유의 이야기 구조와 인물의 깊이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켜 탄생한 시점부터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재해석 되어 누군가에 의해 공연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햄릿”은 ‘삶과 죽음’, ‘정의와 불의’, ‘진실과 허구’라는 문제를 둘러싼 햄릿의 갈등과 주저함을 탁월하게 그려 어긋난 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인의 전형을 보여주며 관객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p> <p>정통에 가까운 고전적인 &lt;햄릿&gt;에 도전, 지성과 이성과 감성의 3박자를 아우르는 주인공 ‘햄릿’을 만들어낸다. 또한 ‘연극의 모나리자’라는 별칭답게 신비롭지만 살아있는 듯 생생함을 느낄 수 있는 여러 캐릭터와 20개의 장면을 표현할 회전무대를 배경으로 흡입력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p> <p><b>[줄거리]</b> 덴마크의 왕자 햄릿은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숙부와 결혼하자 크게 상심했는데, 어느 날 부왕의 영혼이 나타나 자신의 죽음이 숙부(클로디어스 왕)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복수를 명한다. 햄릿은 숙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미친 사람으로 가장하여 사건의 진실을 캐고 복수하고자 하나, 내성적 성격으로 괴로워하며 실천하지 못하고, 그러던 중 유랑 극단이 방문하자, 햄릿은 부왕 독살을 암시한 장면을 넣어 연극을 공연한다. 이를 본 왕과 왕비(햄릿의 어머니)는 당황하게 되고, 햄릿은 영국으로 향하던 중 해적에게 잡혀 포로의 몸으로 귀환한다. 왕은 햄릿으로 하여금 오필리아의 오빠인 레어티스와 검술 경기를 벌이도록 유도하고.....경기도중 왕비는 왕이 햄릿을 독살하려고 마련한 독약을 마시고 숨진다. 이어 레어티스가 독검으로 햄릿에게 상처를 입히며, 햄릿 또한 검을 빼앗아 레어티스를 찌르고, 그리고는 음모를 꾸민 왕을 찔러 죽인다. 복수는 끝났지만, 햄릿 자신도 몸에 독이 퍼져 죽는다.</p>	<p>1,100명</p>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12. 4. 7(토) 만월종합사회복지관	찾아가는 공연 “환타스틱스”	작 : 하비 슈미트, 톰 존슨 연출 : 이완희  <b>* 출연진 *</b> 차광영, 김세경 김현준, 서창희 권순정, 이신애  <b>* 스텝 *</b> 안무 및 분장 : 강주희 반주, 음향 : 최지연 기획 : 김화산  이옥희 이돈형	환타스틱스(철부지들)은 1960년에 하비 슈미트와 톰 존스가 만든 뮤지컬이다. 이 작품은 에드몽 로스땅의 희곡 “낭만적인 사람들”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아이들이 참된 사랑을 찾아가도록 하는 두 아버지의 우화적인 이야기다.	1,484명
2012. 6. 1(금) 도화기계공고			<b>[줄거리]</b> 이 작품은 미국의 조그맣고 이름이 없는 한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한다. 옆집에 사는 소년 매트와 소녀 루이자는 자신들의 아버지가 반대할 거라고 믿으면서도 사랑에 빠진다. 아버지인 허클비와 벨로미는 서로 반목하는 사이인척하면서 자식들이 사랑에 빠지도록 유도한다. 아버지들은 금새 들통 날 수작을 끝내기 위해 약당 엘 갈로를 고용하여 루이자를 가짜로 유괴하게 만들어 매트가 루이자를 구하고 루이자의 아버지한테 승낙을 얻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매트와 루이자는 자신들의 사랑이 더 이상 금지된 것이 아님을 깨닫고 불안해지고 아버지들은 정말로 싸우기 시작한다. 매트는 화를 내며 떠나며, 세상에 무엇이 있는 지 찾으러 떠난다. 반면 루이자는 노련하고 활달한 엘 갈로에게 스스로 유혹 당한다. 매트와 루이자 모두 세상의 경험으로부터 상처를 입고 서로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다시 발견하며 집에 돌아온다.	350명
2012. 6. 2(토) 야외공연장	토요상설무대 “환타스틱스”			450명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12. 5. 4 ~ 13 소공연장 (13회)</p>	<p>제62회 정기공연 “장군각시”</p>	<p>작 : 홍원기 연출 : 이종훈</p> <p><b>* 출연진 *</b></p> <p>조옥선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강성숙 최진영 김현준 정순미 김문정 김태범 최지연 김태훈 송주희 이수정 서창희 김희원 권순정 황혜원 이신애</p> <p><b>* 스텝 *</b></p> <p>미술 : 홍시야 작곡 : 강은구 안무 : 김현아 의상디자인 : 박선옥 조명디자인 : 이상봉 음향디자인 : 이복행 분장디자인 : 손진숙 소품 : 정윤정 사진 : 유재형 훈련장 : 이원희 조연출 : 손경희 기획 : 김화산 이옥희 유은미 이돈형</p>	<p><b>인천 앞바다의 넉넉함으로 품어낸 희망과 상생의 고향</b></p> <p>인천 앞바다의 섬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연극 &lt;장군 각시&gt;는 어부들의 수호신 임경업 장군과 섬마을 사람들, 육지 사람들이 한데 엉켜 벌여내는 한바탕 소용돌이 같은 이야기이다.</p> <p>인천의 자아를 발견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한반도가 겪고 있는 비정상적인 현실에 대한 고발과 보편적 아픔의 근원을 고찰한다. 뿐만 아니라 저마다의 상처를 품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판 곶으로 씻어내고 다시 한번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다독인다. 우리시대 삶의 풍속도를 한바탕 곶판으로 펼쳐내며 움 솟는 소망의 씨앗들을 건져내는 신명나는 연극으로 관객에게 다가갈 것이다.</p> <p><b>[줄거리]</b></p> <p>인천 앞바다의 어느 섬. 섬에는 조기잡이수호신 「임경업장군」을 모시는 당집이 있다. 섬마을에는 지난날 황해바다 조기잡이공동체의 풍성과 인정을 추억하는 노인들과, 육지 도시에서 소외되어 울분에 찬 세월을 먹고사는 젊은 이들이 있다.</p> <p>섬 출신 청년사업가가 신세대 무당과 취재팀을 이끌고 고향 섬으로 들어온다. 오랜만에 도당곳을 벌리겠다는 어머니의 뜻이다. 도당곳을 참관하러 온 답사팀과 취재팀 그리고 청년사업가 어머니의 부동산(당집터)을 차지하려는 사채업자들까지 숨어들면서 작은 섬마을이 떠들썩해진다. 취재팀의 피디(여 주인공)는 청년사업가에게 호감을 느끼며 그 어머니의 사연을 캐기 시작한다.</p> <p>섬 다방의 레지 소녀가 꿈속에서, 조기군사를 거느리고 나타난 임경업장군을 만난다.</p> <p>한밤중 당집에서 임장군 신령과 대면하던 소녀가 해안 절벽으로 추락하면서 해안부대 초소는 비상이 걸리고, 도당곳을 채비하던 섬마을은 한바탕 소동법석의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그지간 숨겨졌던 갈등과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데...</p>	<p>804명</p>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12. 6. 5(화) 경인여고	찾아가는 공연 “환타스틱스”	<p>작 : 하비 슈미트, 톰 존슨 연출 : 이완희</p> <p><b>* 출연진 *</b> 차광영, 김세경 김현준, 서창희 권순정, 이신애</p> <p><b>* 스텝 *</b> 인무 및 분장 : 강주희 반주, 음향 : 최지연 기획 : 김화산 이옥희 이돈형</p>	<p>환타스틱스(철부지들)은 1960년에 하비 슈미트와 톰 존슨이 만든 뮤지컬이다. 이 작품은 에드몽 로스망의 희곡 “낭만적인 사람들”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아이들이 참된 사랑을 찾아가도록 하는 두 아버지의 우화적인 이야기다.</p> <p><b>[줄거리]</b> 이 작품은 미국의 조그맣고 이름이 없는 한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한다. 옆집에 사는 소년 매트와 소녀 루이자는 자신들의 아버지가 반대할 거라고 믿으면서도 사랑에 빠진다. 아버지인 허클비와 벨로미는 서로 반목하는 사이인 척하면서 자식들이 사랑에 빠지도록 유도한다.</p> <p>아버지들은 금새 들통 날 수작을 끝내기 위해 악당 엘 갈로를 고용하여 루이자를 가짜로 유괴하게 만들어 매트가 루이자를 구하고 루이자의 아버지한테 승낙을 얻도록 유도한다.</p> <p>그러나 매트와 루이자는 자신들의 사랑이 더 이상 금지된 것이 아님을 깨닫고 불안해지고 아버지들은 정말로 싸우기 시작한다. 매트는 화를 내며 떠나며, 세상에 무엇이 있는 지 찾으러 떠난다. 반면 루이자는 노련하고 활달한 엘 갈로에게 스스로 유혹 당한다. 매트와 루이자 모두 세상의 경험으로부터 상처를 입고 서로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다시 발견하며 집에 돌아온다.</p>	700명
2012. 6. 7(목) 영흥화력발전소				500명
2012. 6. 8(금) 광성고				1,000명
2012. 6. 11(월) 만수고				400명
2012. 6. 12(화) 서운고				500명
2012. 6. 13(수) 산곡고				800명
2012. 6. 18(월) 청라고				300명
2012. 6. 19(화) 신정중				850명
2012. 6. 20(수) 인천여중				300명
2012. 6. 21(목) 해송고				400명
2012. 6. 22(금) 세일고				1,000명
2012. 7. 12(목) 동방중학교				1,000명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12. 7. 1(일) 경주 예술의 전당	초청공연 “장군각시”	작 : 홍원기 연출 : 이종훈  <b>* 출연진 *</b> 조옥선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강성숙 최진영 김현준 정순미 김문정 김태범 최지연 김태훈 송주희 이수정 서창희 김희원 권순정 황혜원 이신애	<b>인천 앞바다의 넉넉함으로 품어낸 희망과 상생의 고향</b>  인천 앞바다의 섬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연극 <장군 각시>는 어부들의 수호신 임경업 장군과 섬마을 사람들, 육지 사람들이 한데 엉켜 벌여내는 한바탕 소용돌이 같은 이야기이다. 인천의 자아를 발견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한반도가 겪고 있는 비정상적인 현실에 대한 고발과 보편적 아픔의 근원을 고찰한다. 뿐만 아니라 저마다의 상처를 품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판 곶으로 씻어내고 다시 한번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다독인다. 우리시대 삶의 풍속도를 한바탕 곶관으로 펼쳐내며 움 쫓는 소망의 씨앗들을 건져내는 신명나는 연극으로 관객에게 다가갈 것이다.	400명
2012. 8. 4 ~ 5 거창 수송대 축제극장 (2회)		<b>* 스텝 *</b> 미술 : 홍시야 작곡 : 강은구 안무 : 김현아 의상디자인 : 박선옥 조명디자인 : 이상봉 음향디자인 : 이복행 분장디자인 : 손진숙 소품 : 정윤정 사진 : 유재형 훈련장 : 이원희 조연출 : 손경희 기획 : 김화산 이옥희 유은미 이돈형	<b>[즐거리]</b> 인천 앞바다의 어느 섬. 섬에는 조기잡이수호신 「임경업장군」을 모시는 당집이 있다. 섬마을에는 지난날 황해바다 조기잡이공동체의 풍성과 인정을 추억하는 노인들과, 육지 도시에서 소외되어 울분에 찬 세월을 먹고사는 젊은 이들이 있다. 섬 출신 청년사업가가 신세대 무당과 취재팀을 이끌고 고향 섬으로 들어온다. 오랜만에 도당곳을 벌리겠다는 어머니의 뜻이다. 도당곳을 참관하러 온 답사팀과 취재팀 그리고 청년사업가 어머니의 부동산(당집터)을 차지하려는 사채업자들까지 숨어들면서 작은 섬마을이 떠들썩해진다. 취재팀의 피디(여 주인공)는 청년사업가에게 호감을 느끼며 그 어머니의 사연을 캐기 시작한다. 섬 다방의 레지 소녀가 꿈속에서, 조기군사를 거느리고 나타난 임경업장군을 만난다. 한밤중 당집에서 임장군 신령과 대면하던 소녀가 해안 절벽으로 추락하면서 해안부대 초소는 비상이 걸리고, 도당곳을 채비하던 섬마을은 한바탕 소동법석의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그지간 숨겨졌던 갈등과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데...	1,500명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12. 8. 23 ~ 25 소공연장 (3회)</p>	<p>“낭독열전 - 그곳에 가면 행복이 흐른다.”</p>	<p><b>* 출연진 *</b></p> <p>조옥선 서국현 김세경 강주희 강성숙 최진영 김현준 김문정 김태범 최지연 김태훈 이수정 김희원 권순정 황혜원 이신애</p> <p><b>* 스텝 *</b></p> <p>예술감독 : 이종훈 훈련장 : 이완희 조연출 : 손경희 기획 : 김화산 이옥희 유은미 이돈형</p>	<p><b>&lt;스카이 쿵쿵&gt;</b> ‘스카이 쿵쿵’은 허름한 전과상을 하는 아버지, 어설픈 과학자 지망생 형과 함께 지방 소도시의 옥탑 집에서 살아가는 소년 ‘나’의 성장기의 한도막이다. 1980년대생의 유년기를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한 세밀한 묘사, 자연스럽고 풋풋한 유머와 함께 주변적 삶의 그늘과 가난 속의 성장통을 애뜻하게 전해준다.</p> <p><b>&lt;깊이에의 강요&gt;</b> ‘깊이에의 강요’는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좁머씨 이야기”, “항수”의 저자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숨겨진 역작이라 할 수 있다. 예술가라는 비운의 언어를 통해, 현실 원칙이 지배하는 세상살이의 모습을 은유하게 표현한 작품이다.</p> <p><b>&lt;고령화가족&gt;</b> ‘고령화 가족’은 스펙과 경쟁, 출세로 대변되는 성공이라는 경쟁사회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숨 쉬고 싶지 않니”하고 위로를 전하는 작품이다. ‘고령화 가족’은 2010년 발간된 천명관 작가의 장편소설로 가족 안에서 각양각색의 인물들이 벌이는 온갖 사건사고와 그들 간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유쾌하면서도 애뜻하게 그려낸다. 잘 짜인 소설 ‘고령화 가족’은 소설 낭독 공연이라는 형식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1등을 위한 경쟁 속에서 매몰되는 가족애(家族愛)에 대한 뒤돌아봄과 스스로에 대한 위안을 선물하여 줄 것이다.</p> <p><b>&lt;금수회의록&gt;</b> ‘금수회의록’은 당대 현실에 대한 작가의 계몽적 의도가 강하게 드러난 작품이므로, 이 작품의 낭독 과정에서 낭독자는 관객들로 하여금 문학을 통한 당대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제기된 문제 의식의 가치를 현재적인 관점에서 재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담담한 낭독의 화법을 통해 텍스트의 의미 전달을 주목표로 한다.</p>	<p>455명</p>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12. 9. 18(화) 안산 감골도서관	찾아가는 공연	<p><b>* 출연진 *</b></p> <p>김세경 최지연 황혜원</p> <p><b>* 스텝 *</b></p> <p>훈련장 : 이완희 조연출 : 손경희 기획 : 김화산 이옥희 이돈형</p>	<p><b>&lt;스카이 쿵쿵&gt;</b></p> <p>‘스카이 쿵쿵’은 허름한 전과상을 하는 아버지, 어설픈 과학자 지망생 형과 함께 지방 소도시의 옥탑 집에서 살아가는 소년 ‘나’의 성장기의 한도막이다. 1980년대생의 유년기를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한 세밀한 묘사, 자연스럽고 풋풋한 유머와 함께 주변적 삶의 그늘과 가난 속의 성장통을 애뜻하게 전해준다.</p>	70명
2012. 9. 20(목) 재능대학교	찾아가는 공연	<p><b>* 출연진 *</b></p> <p>조윤경 서국현 강주희 김현준 김희원 이신애</p> <p><b>* 스텝 *</b></p> <p>훈련장 : 이완희 조연출 : 손경희 기획 : 김화산 이옥희 이돈형</p>	<p><b>&lt;고령화가족&gt;</b></p> <p>‘고령화 가족’은 스펙과 경쟁, 출세로 대변되는 성공이라는 경쟁사회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숨 쉬고 싶지 않니” 하고 위로를 전하는 작품이다. ‘고령화 가족’은 2010년 발간된 천명관 작가의 장편소설로 가족 안에서 각양각색의 인물들이 벌이는 온갖 사건사고와 그들 간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유쾌하면서도 애뜻하게 그려낸다. 잘 짜인 소설 ‘고령화 가족’은 소설 낭독 공연이라는 형식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1등을 위한 경쟁 속에서 매몰되는 가족애(家族愛)에 대한 뒤돌아봄과 스스로에 대한 위안을 선물하여 줄 것이다.</p>	150명
2012. 9. 21(금) 초은고등학교	찾아가는 공연	<p><b>* 출연진 *</b></p> <p>김세경 최지연 황혜원</p> <p><b>* 스텝 *</b></p> <p>훈련장 : 이완희 조연출 : 손경희 기획 : 김화산 이옥희 이돈형</p>	<p><b>&lt;스카이 쿵쿵&gt;</b></p> <p>‘스카이 쿵쿵’은 허름한 전과상을 하는 아버지, 어설픈 과학자 지망생 형과 함께 지방 소도시의 옥탑 집에서 살아가는 소년 ‘나’의 성장기의 한도막이다. 1980년대생의 유년기를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한 세밀한 묘사, 자연스럽고 풋풋한 유머와 함께 주변적 삶의 그늘과 가난 속의 성장통을 애뜻하게 전해준다.</p>	500명
2012. 10. 13(토) 연수어린이도서관				100명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12. 11. 23 ~ 12. 2 소공연장 (11회)</p>	<p>제63회 정기공연 “오텔로”</p>	<p>작 : 윌리엄 셰익스피어 번역 : 신정옥 각색 : 국민성 연출 : 이종훈</p> <p><b>* 출연진 *</b></p> <p>조옥선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문정 김태범 최지연 김태훈 송주희 서창희 김희원 황혜원</p> <p><b>* 스텝 *</b></p> <p>작/편곡 : 미하엘 슈타우다허 무대디자인 : 이태섭 조명디자인 : 이상봉 의상 및 분장디자인 : 손진숙 소품디자인 : 임규양 사진 : 유재형 헤어디자인 : 달팽헤어 훈련장 : 이완희 조연출 : 손경희 기획 : 김화산 이옥희 유은미 이돈형</p>	<p><b>죽은 다음에도 이대로 있어다오!</b> <b>널 죽일지언정</b> <b>내 사랑이 변치 않게 말이다!</b></p> <p>이 작품은 이탈리아의 작품인 [베니스의 무어 인]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가정의 비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작품은 햄릿이나 리어 왕의 경우처럼 주인공이 겪는 갈등으로 인해 나라가 흔들리고, 주인공의 죽음과 더불어 사회질서도 회복되고 주인공의 영혼도 구제된다는 내용과는 달리, 주인공의 운명과 국가의 운명은 아무 관계가 없으며 흑인 중년남자와 백인처녀 사이의 결혼은 비극을 알리는 신호가 된다.</p> <p><b>[줄거리]</b></p> <p>베니스 공화국의 영화제작이사인 브라반시오의 딸 데스테모나는 영화감독 오셀로를 사랑하여 부친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다. 때마침 칸 영화제를 준비하라는 보고를 받고 오텔로는 영화제 준비를 위해 아내를 데리고 몬테폴치아노 출발한다. 오텔로의 세컨조감독인 이아고는 바라고 있던 퍼스트조감독자리를 캐시오에게 빼앗기자 앙심을 품고 두 사람에게 복수를 계획한다. 몬테폴치아노에 도착한 날 밤 이아고는 주정이 심한 캐시오에게 일부러 술을 마시게 하고 소동을 일으키게 하여 오텔로로부터 파면 당하게 하는 한편, 데스테모나를 통해 캐시오의 복직운동을 하도록 권유한다. 그 뒤 오텔로에게는 캐시오와 데스테모나가 밀애중인 것처럼 보고하고, 오텔로가 그녀에게 주었던 귀한 반지를 아내 에밀리아를 시켜 훔쳐오게 하여 캐시오의 방에 떨어뜨려 두고 거짓 증거를 만든다. 인간심리의 약점을 이용한 이아고의 교묘한 거짓말을 믿어버린 오텔로는 데스테모나를 침대 위에서 목 졸라 죽인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오텔로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고 이아고는 가장 잔혹한 처형을 받게 된다.</p>	<p>1,972명</p>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12. 12. 6(목) 인천중학교	찾아가는 공연	<p><b>* 출연진 *</b></p> <p>김세경 최지연 황혜원</p>	<p><b>&lt;스카이 쿵쿵&gt;</b> ‘스카이 쿵쿵’은 허름한 전과상을 하는 아버지, 어설픈 과학자 지망생 형과 함께 지방 소도시의 옥탑 집에서 살아가는 소년 ‘나’의 성장기의 한도막이다. 1980년대생의 유년기를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한 세밀한 묘사, 자연스럽고 풋풋한 유머와 함께 주변적 삶의 그늘과 가난 속의 성장통을 애뜻하게 전해준다.</p>	270명
2012. 12. 13(목) 인천중학교		<p><b>* 스텝 *</b></p> <p>훈련장 : 이완희 조연출 : 손경희 기획 : 김화산 이옥희 이돈형</p>		250명